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 경 립

2019년 8월

#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현 경 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현경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국문초록>

##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현 경 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453명이며 측정도구는 사회적지지 척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도 정적상관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상담자나 주변에서 지지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적인 개입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3. 연구모형 .....	6
4. 용어의 정의 .....	7
<b>II. 이론적 배경</b> .....	8
1. 사회적지지 .....	8
1) 사회적지지의 개념 .....	8
2)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	9
2. 대학생활적응 .....	10
1) 적응 .....	10
2) 대학생활적응 .....	11
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	12
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개념 .....	12
2)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	13
4.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	14
<b>III. 연구방법</b> .....	15
1. 연구대상 및 절차 .....	15
2. 측정도구 .....	16
3. 자료처리 및 분석 .....	19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21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	21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22
3.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	24
1)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 의 매개효과 .....	25
<b>V. 논의 및 제언 .....</b>	<b>34</b>
참고문헌 .....	39
Abstract .....	45
부 록 .....	48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5
표Ⅲ-2 사회적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17
표Ⅲ-3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18
표Ⅲ-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의 하위요인별 특징 및 문항 구성과 신뢰도 .....	19
표Ⅳ-1 사회적지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	21
표Ⅳ-2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	23
표Ⅳ-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매개효과 .....	24
표Ⅳ-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	26
표Ⅳ-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	27
표Ⅳ-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의 매개효과 .....	29
표Ⅳ-7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	30
표Ⅳ-8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	32

## 그림 목 차

그림 II-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모형 .....	6
그림 IV-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	25
그림 IV-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	26
그림 IV-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	28
그림 IV-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의 매개효과 .....	29
그림 IV-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	31
그림 IV-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	3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가 맞물리는 발달주기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성을 획득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할 때, 대학생이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나, 타인과의 갈등, 문제해결능력 등은 대학생의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있으며, 그것이 곧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김미숙(201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 대학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박미정(2017)은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청소년통계(2017)에 따르면, 중학생은 59.6%, 고등학생 49.8%, 대학생 49.4%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다시 말해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중·고등학생의 만족도에 비해 낮으며, 대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탈락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처럼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하는 과업성취에 차질이 생기고 이후 성인기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이 낮은 것은 유상미, 이승연(2008)의 연구에서 살펴봤을 때, 대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며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심리적 고통을 자주 경험하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최윤정(2012)의 연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환경이나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

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때,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지지의 지각이 낮은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면서 다양하고 넓은 대인관계를 쌓으며,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발달과업에 놓여 있다. 즉,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발달적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이한샘(2014)의 연구에서는 발달과업의 성취는 대학생활적응과 주관적 생활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생활 영역의 과업 실행동기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원활하며, 현재 생활에도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생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김은정(1992)은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대인관계, 정서적인 측면과 학업,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생과 대학환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희영(2008)은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학업 수행 능력이 저하됨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졸업 후 직업 선택이나 사회적 역량과 연관되어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진로, 양육행동(이희영, 2008), 자아존중감(성미혜, 2009), 자기효능감(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정서,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대학에 대한 만족도, 대학 중도탈락 등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 되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들을 봤을 때, 서유정(2017)은 대학생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요인에서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중도탈락보다는 학교생활을 지속할 의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된다면 중도탈락위기에서 벗어나 학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대학생활에 만족하여 적응을 잘 하게 된다는 것이

다. 김현주(2009), 박영철(2018), FU(2016)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 탈북대학생, 한·중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 또 다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서미, 최보영, 조한익(2006)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2008)에서도 사회적 지지자원이 풍부한 사람이 적응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박새와(2012)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대학생활적응과 부적응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를 사회적 지지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때, 최이숙(2004)의 연구에서 대학생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이 이 시기 발달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현주(2009)는 일상생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능력은 적응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변인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통계(2015)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 때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을 친구·동료(46.2%), 부모(26.0%), 스스로 해결(17.6%) 순으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 중에서도 20~24세 청소년들은 ‘친구·동료’와 상담하는 경우가 51.7%로 13~19세의 청소년에 비해 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은 자신의 고민을 주로 주변인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거나,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가 사회에 적응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사회적 지지는 물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심다연(2012)은 대학생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 자신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속한 주변 환경에 대한 지지 지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어유경(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경우 친구의 지지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더해진다면 대학생활적응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미정(2017)은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 관해서 김희숙(2006)은 문제지향과 문제해결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학 생활적응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정희(2009)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 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치료하고 해결하는데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대학 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 적응해야 할 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미(2007)는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함께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선호(2009)는 대학생의 자존감과 사회적지지 지각이 상호작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 내적인 요인,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요인 등 다양하지만 한 가지 측면보다는 이들 변인간의 복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며, 그 결과가 대학 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대학생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적응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D'Zurilla와 Nezu(1982)는 정신건강과 적응에 대하여 문제해결적 접근으로 다가가는 연구자들은 인간을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고 가정하였다. 최혜진(2016)은 20대인 성인 초기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장 많이 배우고 습득한다고 하였고, 성인 초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경란(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인 초기인 대학생의 휴학, 자퇴 등의 부적응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더불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사회적지지가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이해를 하며, 대학생활의 적응과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상담과정을 도모하고, 대학생들이 상담자나 교수, 주변인들의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지각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이나 교육 개입을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매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차후 대학생의 효과적인 대학 생활적응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는 상담프로그램과 대학생활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문제지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문제지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회피적 반응양식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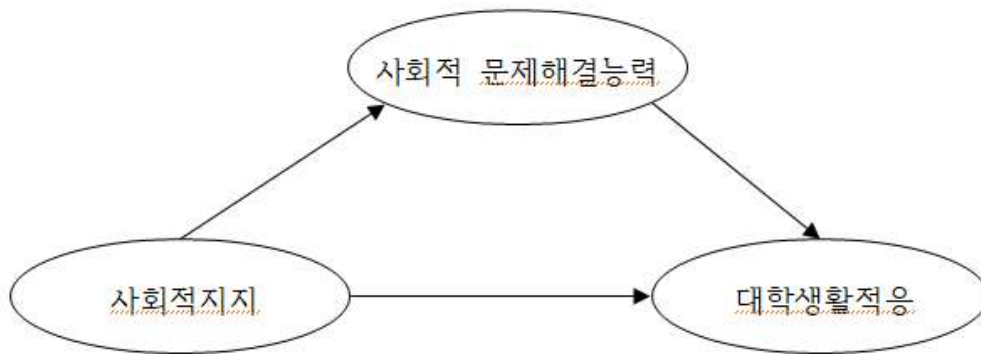


그림 I-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모형

## 4. 용어의 정의

### 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조명실(2007)이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의 정의에 근거하여 사회적지지를 한 개인이 위기시에 느끼는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춘 용어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내에서 학업, 대인관계, 사회 생활 등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주변인에 대한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Baker & Siryk, 1984)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은이, 박용한(2009)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을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D'Zurill & Nezu, 1982)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 상황들에 부딪히는 문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이순(2002)이 개정한 사회적 문제해결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문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의미하는 문제지향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충동적이고 신중하지 못하고 혹은 문제를 회피하는지를 포함하는 문제해결기술로 구분한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개인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을 말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지지

#### 1) 사회적지지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즉 사람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지를 얻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종원(2014)에 의하면, 사회적지지는 한 개인의 인적, 물적, 주위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원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Bowlby(1980)는 “어떤 연령의 사람이든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도와주러 올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결론내리고 애착이론에서도 인생 초기에 사회적지지를 이용한다면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는 한 개인이 위기 시에 느끼는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춘 용어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지지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서 사람을 지지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에 적극적인 원조를 주는 개인의 안녕에 중요한 요소이다. 즉, 사회라는 체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수, 2014; 하연미, 2003; Cohen & Hoberman, 1983).

Kaplan과 Core(1977)은 사회적지지만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타인이 있고, 자신을 돌봐주고 의지할 사람이 있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 하였으며, House(1981)는 애정, 도움, 긍정의 요소를 포함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교류를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김이레(2003)는 사회적지지란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사회적인 적응에 도움을 주어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회적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지적인 사회적 접촉을 덜 가진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ohen & Wills, 1985),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측면은 낮추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임정숙, 윤명숙, 2014). 김우석(2009)의 연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또한, 진효정(2012)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객관적인 사회적지지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지각된 사회적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지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러한 연구도 많다. 외부에서 사회적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개인이 사회적 지지로 지각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를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관심, 존경, 애정, 신뢰,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지지, 두 번째는 정보적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물건이나 돈을 필요로 할 때 직접적으로 돕거나 일을 대신해 주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적지지, 마지막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해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부정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2)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박지원(1985)에 의하면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이 위기시에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에게서 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이라 하였는데 즉, 대학생에게 위기란 대학생활

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때 대학생 개인에게 가족이나 친구, 교수, 상담사 등 주변인들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적극적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는 학생은, 사회적지지가 낮은 것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또한 이화진(2017)의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변의 지지와 지지에 대한 지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미숙(2012)은 대학생이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높을 때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영철(2018)의 탈북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U(2016)의 연구결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에 잘 적응하며 대학에 대한 애착을 가짐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 2. 대학생활적응

### 1) 적응

적응이란 주변 환경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적응을 잘 하면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응 과정에서 개인이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좌절, 불만족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정은이, 박용한, 2009). 즉 적응을 환경에 대한 창조적, 자발적 행동이며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규범, 가치,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부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개인의 감정, 욕구, 사상 등이 사회의 규범에 용납되지 않거나 인간관계와 사회적응에서의 부조화 상태(최순남, 송창호, 김상래, 정남용, 2006)를 말한다.

Adams(1980)는 적응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며, 또 다른 차원에서

적응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적극적 자세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기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최인선, 주은지, 2016). 오미진(2014)은 적응이란 개인과 객관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혹은 개인과 환경과 갈등 관계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적응은 환경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최대한 이용하거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대인관계, 학업, 정서적 측면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생활적응은 대학생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잘 알아 차리고, 상호교류를 통해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김은정, 1992). 적응에 관한 문제는 전 생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특히 대학생 시기인 청년기에 있어서 다른 시기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시기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기에 획득하고 형성되는 적응 양식은 청년기 이후의 생애 발달을 통해 기본이 되는 적응체계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학생활을 적응하는 것은 청년기인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박강희, 1997; 서희채, 2005).

대학 생활적응을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나 지적기능의 발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김진하, 2004; 김현주, 2009). 또한, 신지영(2000)과 조화진(2005)은 대학 생활 적응을 대학환경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달성하고 과업에 능동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대학환경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부딪히는 삶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소라(2003)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사회적 성숙과 성인기의 준비 단계로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적응과 관련한 변인들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에서는 학업성취만을 적응 여부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정서적 적응, 대인 관계적 적응, 사회



적 적응, 대학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의 적응이 연구되고 있다(오미진, 2014). 대학생들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선행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선화(2004)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대학생은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의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하정희(2006)는 대학생활적응과 생활스트레스는 부적상관 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차선경(2013)은 대학신입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수준도 높고 이로 인해 대학생활적응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성격 변인, 자아존중감, 개인의 통제력, 대학생활에 관한 신화 등이 있으며(김은정, 1992; 정은희, 1992; 최송미, 1999), 성인애착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김경미, 2009; 이윤주, 민하영, 이영미, 2001; 조화진, 서영석, 2010). 최근에는 정서조절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김희숙, 2006; 이정선, 2012)와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서희채, 2005; 송진열, 2017; 황혜지, 2017)도 활발해졌다.

### 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 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개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문제해결, 문제해결기술, 또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등의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고 비슷한 의미로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전적 의미로 문제란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곧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Zurilla와 Nezu(1982)는 문제해결이란 사회적, 실제적 문제해결을 말하는 것으로 각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확인하거나 발견하여 수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문

제해결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 상황들에 직면하였을 때,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방안을 찾아내려는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박미정(2017)은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엽(2003)는 문제해결능력이란 현재 상태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상태 간의 Gap이 인식되고 그 과정에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활동이며 효과적이고 최적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적,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현재 상태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 간의 Gap이 인식될 때 문제가 지각되는 것이며,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을 수행해야 한다(이석재 외, 2003). 이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문제해결 능력은 개인의 일상에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해 최이순(2002)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이순(2003)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란 개인이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능력이며 미시적으로는 개인, 가족, 대인관계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집단의 문제해결까지 포함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 2)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효과적, 합리적,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며,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개인적 느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며 좌절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며 사회적으로도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한다(D'Zurilla & Nezu, 1990)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미정, 2017)는 결과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이경란, 2006),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다는 연구 결과(김희숙, 2006)도 보였다.

#### 4.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사회적지지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남영옥, 이상준(2008)은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된 청소년은 심리적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실패를 하더라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유리, 홍정순(2016)은 사회적 지지의 지각수준이 높을 때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높은 반면, 문제를 위협으로 보고 역기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의 지각수준은 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학업적 요소, 개인 정서적 요소와 대학에서 관계적 활동과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소가 있다(Baker & Siryk,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매개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의 4년제 학과가 있는 4개 대학교 학생들을 모집단(전체 재학생 수 14,035명, 대학알리미 사이트 2018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비례층화표집법으로 제주지역의 4년제 학과가 있는 각 대학에서 정해진 수만큼 무작위로 표본추출을 하여 표본과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4년제 학과가 있는 제주대학교(10,244명), 제주국제대학교(1,358명), 제주한라대학교(2,010명), 제주관광대학교(423명)에서 표본 수가 적은 제주관광대학교를 제외한 3개 학교에서 표본을 추출하였고, 대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1학년은 제외되어 2~4학년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내용에 부정확하게 응답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47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45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으로 살펴보았으며,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53)

구분		명(N=453)	백분율(%)
성별	남자	190	41.9
	여자	263	58.1
학년	2학년	165	36.4
	3학년	176	38.9
	4학년	112	24.7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자 41.9%(190명), 여자가 58.1%(263명)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 38.9%(176명), 2학년 36.4%(165명), 4학년 24.7%(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9년 3월 11일~ 3월 12일 제주대학교 학생 15명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였고, 2019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3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2, 3, 4학년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기도 하였고, 학과 및 수업 담당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고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2. 측정도구

### 1) 사회적지지 척도

박지원(1985)이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적 틀로 사회적 지지망과 지지형태(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그리고 지지욕구 등의 세 차원을 기초로 사회적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구성영역으로는 상황 중심의 실제적 지지척도와 일반적으로 지각된 지지척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지각된 지지척도는 다시 자신의 지원 욕구 충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와 사회망 구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로 세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지지 척도는 세 개의 개념 차원에 대해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985년 박지원이 개발하고 조명실(200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지지(.85), 정보적지지(.84), 물질적지지(.83), 평가적지지(.85)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25문항이며 Likert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명실(200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사회적지지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정서적지지	1,6,7,10,16,18,24	7	.923
정보적지지	8,14,17,19,22,25	6	.920
물질적지지	3,9,13,15,20,23	6	.869
평가적지지	2,4,5,11,12,21	6	.904
전 체		25	.972

## 2) 대학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정은이, 박용한(2009)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현실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하위요인이 대학내의 타인과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교류하는지를 의미하는 대인관계(.79), 학업에 충실하고 공부를 하는지를 의미하는 학업활동(.78), 진로를 위해 시간계획 등은 잘 세우는지를 의미하는 진로준비(.77), 대학생으로서 책임감이나 도전할 용기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인심리(.77), 문화 및 학술 프로그램, 봉사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사회체험(.70)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은이, 박용한(200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각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Ⅲ-3과 같다.

표Ⅲ-3 대학생활적응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구성요인	문항	문항수	Cronbach's $\alpha$
학업활동	1,2,3,4	4	.812
진로준비	5,6,7,8	4	.808
개인심리	9,10,11,12	4	.755
대인관계	13,14,15,16	4	.806
사회체험	17,18,19	3	.761
전 체		19	.887

### 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

사회적 문제해결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SPSI)는 D'Zurilla와 Nezu(1990)가 70문항을 개발하였고, 임상집단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Maydeu-Olivares & D'Zurilla(1996)가 요인분석을 통해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SPSI-R)로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이순(2002)이 우리말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지향과 문제해결기술의 2가지 주요척도로 구분되며, 전체 또는 하위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좋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긍정적 문제지향(.63), 부정적 문제지향(.83), 합리적 문제해결기술(.91),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79), 회피적 반응양식(.78) 등 5요인이 있다.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평정 척도의 자기보고형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와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표Ⅲ-4와 같다.

표Ⅲ-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 특징 및 문항 구성과 신뢰도

구분	하위요인	주요특징	문항	Cronbach's $\alpha$
문제 지향	긍정적 문제지향 (Positive Problem Orientation: PPO, 5문항)	건설적인 문제해결, 문제를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	7,9,19,28,38	.652
	부정적 문제지향*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NPO, 10문항)	역기능적인 인지-정서와 관련, 문제를 위협으로 보고 해결능력이 없다고 생각	1,2,6,12,13,17, 32,36,41,50	.865
문제 해결 기술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Rational Problem Solving: RPS, 20문항)	건설적인 문제해결, 합리적, 체계적, 기술적인 작용으로 해결	5,11,18,20,,24, 25,26,27,29,33, 35,37,39,40,43, 44,46,47,48,49	.889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Impulsive-Carel essness Style: ICS, 10문항)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패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만 한정적이고 충동적,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르고 불완전한 시도가 됨.	3,4,8,15,21,22, 34,45,51,52	.815
	회피적 반응양식* (Avoidance Style: AS, 7문항)	역기능적 문제해결 패턴, 해결을 미루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특성	10,14,16,23,30, 31,42	.771
전체			52	.912

주) \*는 역문항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각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위계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IV-1과 같다.

표IV-1 사회적지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대학생활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하위영역	M	SD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4.04	.696
	정보적지지	4.00	.726
	물질적지지	3.77	.734
	평가적지지	3.97	.685
	전체	4.02	.692
대학생활적응	학업활동	3.77	.768
	진로준비	2.89	.861
	개인심리	3.67	.730
	대인관계	3.24	.880
	사회체험	2.94	1.001
	전체	3.32	.609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긍정적 문제지향	3.69	.570
	부정적 문제지향	3.15	.695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3.49	.480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3.31	.587
	회피적 반응양식	3.38	.653
	전체	3.36	.428

표IV-1에서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 지지의 평균은 4.04, 정보적지지의 평균은 4.00, 물질적지지의 평균은 3.77, 평가적지지의 평균은 3.97로 정서적지지(M=4.04,

SD=.69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서는 학업활동의 평균3.77, 진로 준비 2.89, 개인심리 3.67, 대인관계 3.24, 사회체험 2.94로 학업활동(M=3.77, SD=.768) 수준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긍정적 문제지향의 평균은 3.69, 부정적 문제지향은 3.15,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은 3.49,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3.31, 회피적 반응양식은 3.38로 긍정적 문제지향((M=3.69, SD=.5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전체 및 하위요인(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정적상관( $r=.363$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은 정적상관( $r=.473$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도 정적상관( $r=.482$ ,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요변인들간의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고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 $r=.796$ ,  $p<.01$ )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합리적 문제해결기술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가 정적상관( $r=.795$ ,  $p<.01$ )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문제지향( $r=.356, p<.01$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 $r=.326, p<.01$ ), 부정적 문제지향( $r=.260, p<.01$ ),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r=.215, p<.01$ ), 회피적 반응양식( $r=.177, p<.01$ ) 순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 및 하위요인 변인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r=.414, p<.01$ ), 부정적 문제지향, 회피적 반응양식( $r=.359, p<.01$ ), 긍정적 문제지향( $r=.348, p<.01$ ),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r=.303, p<.01$ ) 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와 하위변인들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표IV-2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453)

	1	2	3	4	5	6	7	8
1 사회적 지지	1							
2 대학생활 적응	.473**	1						
3 긍정적 문제지향	.356**	.348**	1					
4 부정적 문제지향	.260**	.359**	.363**	1				
5 합리적 문제해결 기술	.326**	.414**	.495**	.199**	1			
6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215**	.303**	.130**	.500**	.444**	1		
7 회피적 반응양식	.177**	.359**	.308**	.615**	.281**	.625**	1	
8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전체)	.363**	.482**	.470**	.690**	.795**	.796**	.623**	1

\*\*  $p<.01$

### 3.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IV-3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전체)에 정(+ )의 영향( $\beta=.363, t=8.269,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에 정(+ )의 영향( $\beta=.473, t=11.390,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함께 투입됐을 때 대학생활적응에 정(+ )의 영향( $\beta=.343, t=8.307,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사회적지지( $\beta=.473$ ) 보다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 $\beta=.343$ )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IV-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2$	$F$	$B$	$SE$	$\beta$	$t$
1	사회적지지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132	68.373	.224	0.27	.363	8.269***
2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223	129.721	.416	.036	.473	11.390***
3	사회적지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 대학생활적응	.335	113.093	.302 .509	.036 .059	.343 .358	8.307*** 8.308***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224, 표준오차SE(a)=.027					
Z=7.39***		비표준화 회귀계수B(b)=.509, 표준오차SE(b)=.059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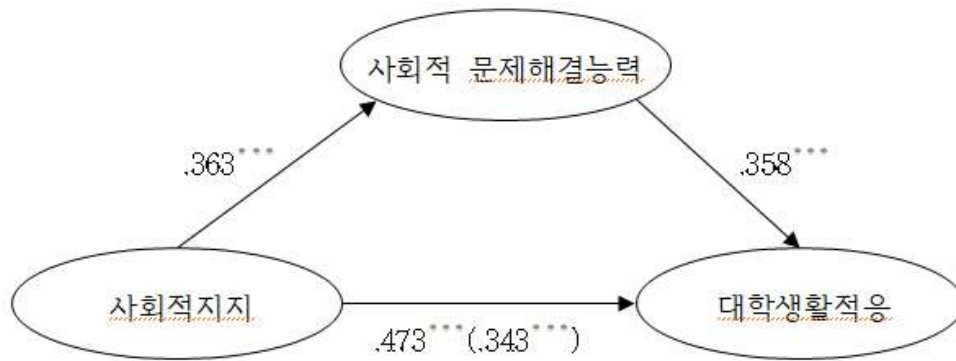


그림 IV-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7.39, p<.001$ ).

#### 1)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총 5번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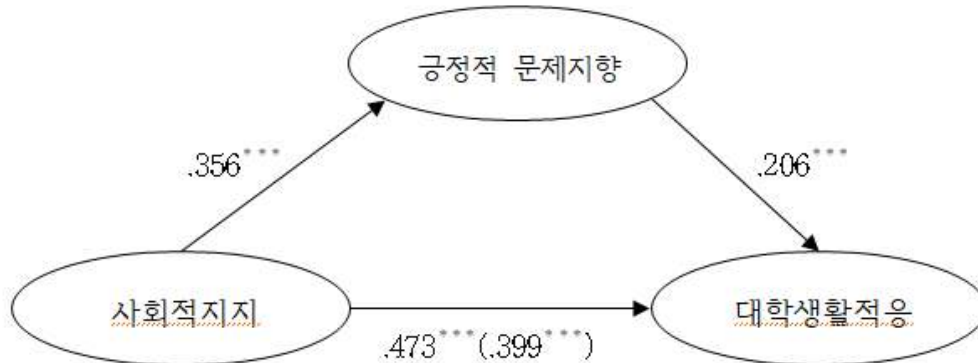
표IV-4는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긍정적 문제지향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종속변인인 긍정적

문제지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beta=.356, p<.001$ ),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표IV-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2$	$F$	$B$	$SE$	$\beta$	$t$
1	사회적지지 → 긍정적 문제지향	.127	65.587	.294	.036	.356	8.009***
2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223	129.721	.416	.036	.473	11.390***
3	사회적지지, 긍정적 문제지향 → 대학생활적응	.260	79.195	.351 .220	.038 .046	.399 .206	9.203*** 4.742***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294, 표준오차SE(a)=.036					
Z=4.78***		비표준화 회귀계수B(b)=.220, 표준오차SE(b)=.046					

\*\*\*  $p<.001$



그림IV-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인인 대학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eta=.473, p<.001$ )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인인 긍정적 문제 지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 $\beta=.399, p<.001$ )와 매개변인인 긍정적 문제지향( $\beta=.206, p<.001$ )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beta=.473, p<.001$ )보다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beta=.399, p<.001$ )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긍정적 문제지향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 생활 적응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긍정적 문제지향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문제지향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문제지향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4.78,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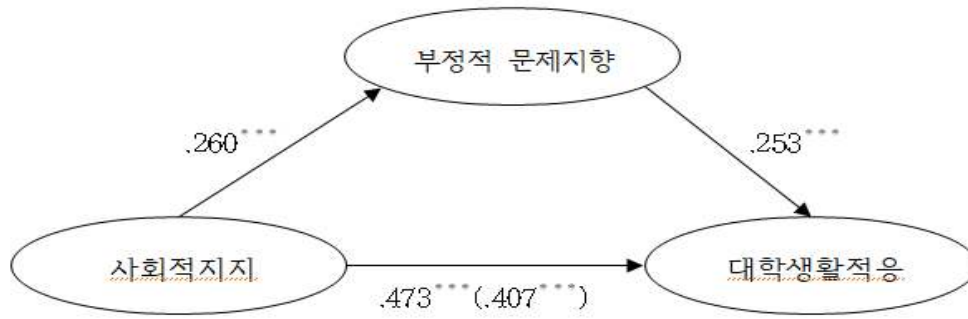
(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표IV-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2$	$F$	$B$	$SE$	$\beta$	$t$
1	사회적지지 → 부정적 문제지향	.068	32.738	.261	.046	.260	5.722***
2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223	129.721	.416	.036	.473	11.390***
3	사회적지지, 부정적 문제지향 → 대학생활적응	.283	88.767	.358 .221	.036 .036	.407 .253	9.842*** 6.112***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 $B(a)=.261$ , 표준오차 $SE(a)=.046$					
Z=4.86***		비표준화 회귀계수 $B(b)=.221$ , 표준오차 $SE(b)=.036$					

\*\*\*  $p<.001$





그림IV-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문제지향의 매개효과

표IV-5는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부정적 문제지향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는 종속변인인 부정적 문제지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beta=.260, p<.001$ ),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eta=.473, p<.001$ )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인인 부정적 문제지향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 $\beta=.407, p<.001$ )와 매개변인인 부정적 문제지향( $\beta=.253, p<.001$ )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인 사회적지지의 예측변인( $\beta=.473, p<.001$ )보다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지지의 예측변인( $\beta=.407, p<.001$ )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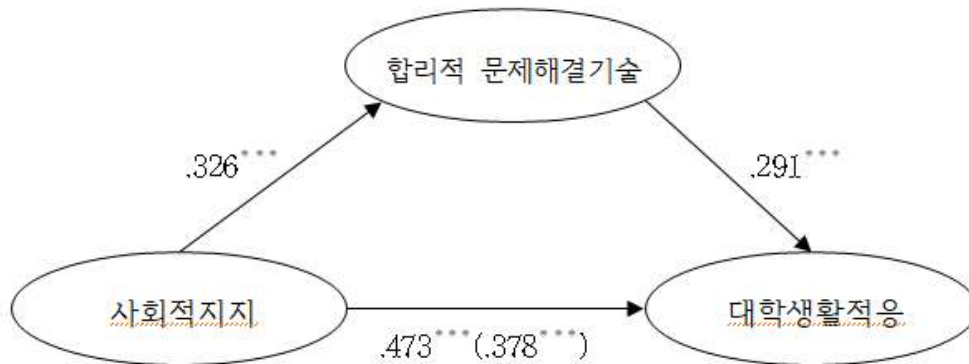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정적 문제지향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문제지향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문제지향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4.86, p<.001$ ).

(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의 매개효과

표IV-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2$	$F$	$B$	$SE$	$\beta$	$t$
1	사회적지지 → 합리적문제해결기술	.106	53.610	.226	.031	.326	7.322***
2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223	129.721	.416	.036	.473	11.390***
3	사회적지지, 합리적문제해결기술 → 대학생활적응	.299	95.913	.332	.037	.378	9.05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226, 표준오차SE(a)=.031					
Z=5.13***		비표준화 회귀계수B(b)=.368, 표준오차SE(b)=.053					

\*\*\* p<.001



그림IV-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의 매개효과

표IV-6은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는 종속변인인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beta=.326$ ,  $p<.001$ ),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eta=.473, p<.001$ )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인인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 $\beta=.378, p<.001$ )와 매개변인인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beta=.291, p<.001$ )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인 사회적지지( $\beta=.473, p<.001$ )보다 3단계에서의 사회적지지의 예측변인( $\beta=.378, p<.001$ )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의 부분매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5.13, p<.001$ ).

(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매개효과

표IV-7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2$	$F$	$B$	$SE$	$\beta$	$t$
1	사회적지지 → 충동부주의적반응양식	.046	21.912	.183	.039	.215	4.681***
2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223	129.721	.416	.036	.473	11.390***
3	사회적지지,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 대학생활적응	.266	81.445	.376	.036	.427	10.329***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183, 표준오차SE(a)=.039					
	Z=3.95***	비표준화 회귀계수B(b)=.219, 표준오차SE(b)=.043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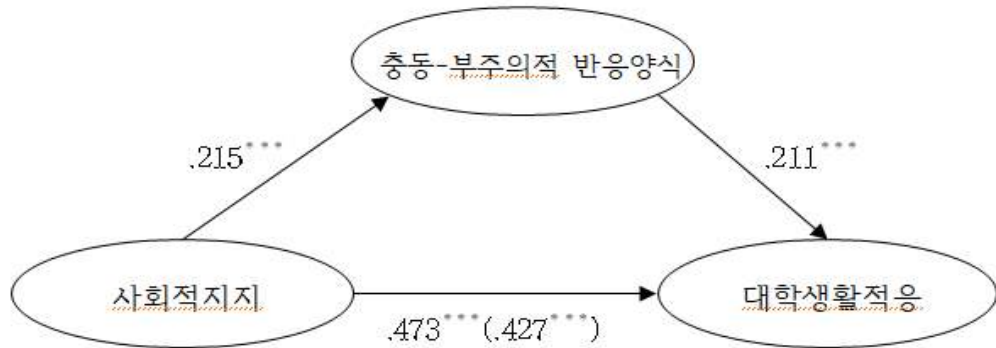


그림 IV-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표 IV-7은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는 종속변인인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beta=.215, p<.001$ ),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eta=.473, p<.001$ )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인인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 $\beta=.427, p<.001$ )와 매개변인인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beta=.211, p<.001$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사회적지지( $\beta=.473, p<.001$ )보다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 $\beta=.427, p<.001$ )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3.95, p<.001$ ).

(5)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회피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표IV-8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2$	$F$	$B$	$SE$	$\beta$	$t$
1	사회적지지 → 회피적 반응양식	.031	14.594	.167	.044	.177	3.820***
2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223	129.721	.416	.036	.473	11.390***
3	사회적지지, 회피적 반응양식 → 대학생활적응	.301	97.082	.371 .264	.035 .037	.422 .284	10.551*** 7.090***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167, 표준오차SE(a)=.044					
Z=3.63***		비표준화 회귀계수B(b)=.264, 표준오차SE(b)=.037					

\*\*\* p<.001

표IV-8은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피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는 종속변인인 회피적 반응양식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beta=.177, p<.001$ ),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eta=.473, p<.001$ )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매개변인인 회피적 반응양식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인 사회적지지( $\beta=.422, p<.001$ )와 매개변인인 회피적 반응양식( $\beta=.284, p<.001$ )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의 사회적지지( $\beta=.473, p<.001$ )보다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 $\beta=.422, p<.001$ )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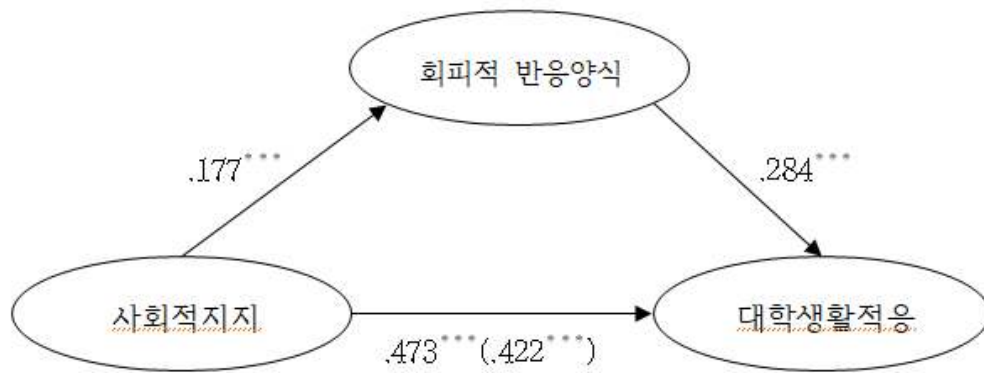


그림 IV-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회피적 반응양식은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반응양식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회피적 반응양식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3.63$ ,  $p<.001$ ).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 및 하위요인(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방안들에 대해 모색하며, 대학생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에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적응도 정적상관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도 잘 한다는 선행연구(김경미, 2010; 황혜지, 2016; 서유정, 2017; 박영철, 2018)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는 선행연구(김희숙, 2006; 유상미, 이승연, 2008; 이정희, 2009; 심다연, 2012)의 결과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만약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자

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안정감, 사랑과 수용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획득하고 대처 전략을 증가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는 송연수(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회적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도 적응을 잘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친구, 교수, 상담자 등 주변인들의 공감이나 격려 등 지지가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며 긍정적 문제지향 수준이 높고,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은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이 높으면 회피적 반응양식도 높아지고, 부정적 문제지향 수준이 높으면 회피적 반응양식 수준과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반대로 문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충동적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문제를 회피하여 결국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개인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긍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문제상황이나 사태를 잘 파악하며 더 나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지지의 긍정적인면은 사회적지지만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부정적인 면으로 다가와 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는 어유경(2004)의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경우 친구의 지지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적지지의 부정적인 면을 상쇄시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기조절력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이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가 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기술을 발휘하여 문제에 대처하게 되므로 자신감도 생기고 사회적지지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문제지향,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문제해결기술,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은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문제지향과 합리적 문제해결기술은 사회적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이며, 부정적 문제지향과,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이화진(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게 지각될수록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은 반면,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게 지각될수록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방식과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았다는 김희숙(2006)의 연구와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유승미, 이승연(2008)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쳐 대학 내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심다연(2012), 김경미(2010)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 상담이나 상담프로그램 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대학생에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 프로그램이

나 대학내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대학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자신감을 키우고,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개입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사회적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는 매개변인을 밝혀냄으로써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다양한 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들을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으며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사회적지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서적 지지 및 평가적지지도 포함될 수 있는 실제적인 개입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박명신, 한상훈, 김영미(2014)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창의성, 리더십, 정서조절전략을 키우는 수업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이어 대학생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 개발된다면 더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한정하여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형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므로 연구 대상자의 편견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이나 관찰 혹은 프로그램

을 계획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4년제 학과가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로만 표집을 하여 얻어낸 결과이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미(2010). **대학생의 성인애착,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12). **자아탄력성이 사회적지지, 생활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2003). 학생생활상담소 2003학년도 활동보고. **학생생활연구**, 26(0), 179-187
- 김수지(2012).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레(2003).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201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 구축**.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 김주희(2013).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9). **장애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수(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06). **정서조절 양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이상준(2008).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학교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63-82.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강희(1997). **대학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 효과 검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2017).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새와(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희망감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철(2018). **탈북대학생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 최보영, 조한익(2006).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271-288.
- 서유정(2017). **대학생의 학교만족도, 사회적지지, 전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채(2005).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혜(2008). 여대생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84-96.
- 송연수(2009).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애, 장정순(2010).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1), 119-144.
- 송진열(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8(12), 335-345.
- 신미정(2014).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다연(2012).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 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태규, 이민규(2013). 수면과 정서조절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783-806.
- 어유경(2004). **취약한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개인적 특성의 보호기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미, 이승연(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2), 119-136.
- 윤석빈(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진(201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의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란(2006).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13(3).
- 이선아(2014).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의사소통의 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12, 57-71.
- 이선호(1999). **자존감과 사회적지지 지각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2007). **사회적지지 지각이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 홍정순(2016). 성인초기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5(2), 151-165.
- 이윤주, 민하여, 이영미(2004).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자아탄력성 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5(4), 125-144.
- 이자영, 최용용(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 연구**, 13(3), 1481-1499.
- 이정선(2012).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조절 양식 및 대학생활의 사회적 적응의**

-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9). **제한 중국유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2009). **성별과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방략 사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07-524.
- 이화진(2017).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전주대학교 일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2008). **양육행동과 대학생활적응: 문화성향의 중재 효과**. 동북아 문화연구, 14, 337-355.
- 임전옥(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숙, 윤명숙(201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지, 42(1), 31-60.
-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2015).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5(3), 219-228.
-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8(12), 535-558.
- 정은이, 박용한(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은(2013). **정서조절양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진효정(2012).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선경(2013). 간호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양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보건의료과학연구**, 2(1), 63-71.
- 최송미(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남, 송창호, 김상래, 정남용(2006). 서울지역 대학생의 골밀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1(6), 596-605.
- 최윤정(2012).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대학생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분석-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2), 307-333.
- 최이숙(2003).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개념, 심리사회적성숙도와 관계**.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이순(2002). 사회적 문제해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13-428.
- 최이순(2003). 알코올 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결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27-934.
- 최인선, 주은지(2016).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145-173.
- 최혜진(2016). **성인초기의 눈치와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연미(2003).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친구지지 및 충동성이 인터넷관련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7(1), 1-19.
- 하정희(2008).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황혜지(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U, I(2016). **중국유학생의 학습참여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2017)**.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통계(2017)**.
- Baker, R.W., & Siryk, B.(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Cohen, S. & Hoberman, H.M.(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s,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ietin*, Vol. 98, 310-357.
- D’Zurilla, T. J., & Nezu, A, M,(1982). **Social Problem-Solving in adult**. IN:P.C.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D’Zurilla, T. J., & Nezu, A, M,(1990). Devolo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s**.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
- Kaplan, B. H., Cassel,J.C. & Gore S.(1977). Social supports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Abstract>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Hyun Kyung-Lim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To do this I set up research problems and hypotheses as follows.

Research Problem 1. Do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Hypothesis 1.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will have a mediated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In order to solve this research problem,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53 college students in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The measurement tools were Social Support Scal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Scal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Scal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mediation effect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better the college life adaptation, and the higher th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lso,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it was found that students with high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were better able to adapt to college life.

Second, a result of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which is a parameter,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Social support has a direct impa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but it indirectly affects through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s a parameter.

Third,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sub - factors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s a parameter. The subordinate factors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positive problem orientation,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rational problem solving technique, impulsive - careless reaction style, and avoidance response style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affects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through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Therefore, in order to adapt to university life, most of all, college students need practical measures to intervene, such as counseling programs to improv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client's at the counseling site. It is hoped that institutional intervention measures will be devised in order to secure support resources from counselors and around them so that they can be highly aware of social support.

**Key words** : social support, college life adaptati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 설문지

NO. \_\_\_\_\_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행동에 비추어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에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3월

연구자: 현 경 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다음은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_\_\_\_\_      ② 여자\_\_\_\_\_

2.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아래문항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문제들**이란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문제, 가족간의 불화 혹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를 해주기시 바랍니다. **해당 번호에 한 문항이라도 빠트리지 않고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5
2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3	결정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	1	2	3	4	5
4	결정을 할 때, 각 각의 해결책이 다른 해결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	1	2	3	4	5
5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시켜본다.	1	2	3	4	5
6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1	2	3	4	5
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8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대로 행동한다.	1	2	3	4	5
9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10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기 전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지 보려고 기다린다.	1	2	3	4	5
11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	1	2	3	4	5
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는 매우 좌절한다.	1	2	3	4	5
13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1	2	3	4	5
14	문제해결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룬다.	1	2	3	4	5
15	어떤 해결책이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해 그 문제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	1	2	3	4	5
17	어려운 문제들은 나를 아주 기가 죽게 만든다.	1	2	3	4	5
18	결정을 할 때, 각 해결책의 앞뒤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1	2	3	4	5
19	가능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1	2	3	4	5
20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려고 한다.	1	2	3	4	5
21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맨 처음 떠오른 좋은 생각을 따른다.	1	2	3	4	5
22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1	2	3	4	5
23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회피한다.	1	2	3	4	5
24	결정을 내릴 때, 각 해결책의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한다.	1	2	3	4	5
25	해결책을 쓰고 난 뒤에 잘 되어 가는 것과 잘못 되어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을 한다.	1	2	3	4	5
26	문제를 해결한 후, 내 기분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한다.	1	2	3	4	5
27	해결방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해결방법을 연습해 본다.	1	2	3	4	5
28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29	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모은다.	1	2	3	4	5
30	너무 늦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문제해결을 미룬다.	1	2	3	4	5
31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32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심란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없다.	1	2	3	4	5
33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도록 목표를 먼저 세운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결정을 할 때, 각각의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않는다.	1	2	3	4	5
35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실패했을 때,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다시 시도한다.	1	2	3	4	5
36	문제를 해결하기가 싫다.	1	2	3	4	5
37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보기 위해 확인한다.	1	2	3	4	5
38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도전해 볼만한 것으로 여긴다.	1	2	3	4	5
39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1	2	3	4	5
40	결정을 할 때, 결정의 결과를 가늠해 본다.	1	2	3	4	5
41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1	2	3	4	5
42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간다.	1	2	3	4	5
43	결정을 할 때, 각 해결책의 결과들이 나의 감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한다.	1	2	3	4	5
44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내 주위에서 찾는다.	1	2	3	4	5
45	결정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할 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감에 따라 한다.	1	2	3	4	5
46	결정을 할 때,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1	2	3	4	5
47	문제를 해결할 때, 목적을 항상 염두 해 둔다.	1	2	3	4	5
48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	1	2	3	4	5
49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한다.	1	2	3	4	5
50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실패했을 때, 힘이 빠지고 우울해진다.	1	2	3	4	5
51	해결 방법이 왜 잘 실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갖지 않는다.	1	2	3	4	5
52	결정을 할 때, 마음이 너무 급해서 행동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다음은 **대학생활적응**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한다.	1	2	3	4	5
3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 관리를 잘하고 있다.	1	2	3	4	5
4	강의 중 발표나 조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1	2	3	4	5
5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	2	3	4	5
6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1	2	3	4	5
7	토익 등 영어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1	2	3	4	5
8	취업을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1	2	3	4	5
9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다.	1	2	3	4	5
11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1	2	3	4	5
12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열심히 살았던 기억과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는다.	1	2	3	4	5
13	학교 내에서 친한 친구들이나 선후배, 아는 사람들이 많다.	1	2	3	4	5
14	나는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선배들에게 많은 의견과 조언 등을 듣는다.	1	2	3	4	5
16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교수님이 있다.	1	2	3	4	5
17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사회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1	2	3	4	5
18	교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9	교내에서 진행되는 문화 및 학술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부모님, 친구, 교수, 이웃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	그들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준다.	1	2	3	4	5
3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큰돈이라도 마련해 준다.	1	2	3	4	5
4	그들은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1	2	3	4	5
5	그들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인정해 준다.	1	2	3	4	5
6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1	2	3	4	5
7	그들은 내 개인적인 문제를 기꺼이 들어 준다.	1	2	3	4	5
8	그들은 내 문제를 이해해 주고 함께 고민해 준다.	1	2	3	4	5
9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10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다.	1	2	3	4	5
11	그들은 내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12	그들은 나를 인간적으로 존중해 준다.	1	2	3	4	5
13	그들은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14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1	2	3	4	5
15	그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 준다.	1	2	3	4	5
16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격정해 준다.	1	2	3	4	5
17	그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준다.	1	2	3	4	5
18	그들은 내가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1	2	3	4	5
20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1	2	3	4	5
21	그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1	2	3	4	5
22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1	2	3	4	5
23	그들은 내가 몸져누웠을 때 나의 일을 대신 해 준다.	1	2	3	4	5
24	그들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나의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해 준다.	1	2	3	4	5
25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준다.	1	2	3	4	5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빠짐없이 응답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